

##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김경희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황혜정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저소득층과 중류층 취학전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과 행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취학전 아동 509명(저소득층 244명, 중류층 265명)이었다.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를 판별하기 위해서 교사용 '취학전 아동행동 목록표(PBCL)'를,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모의 수용-거부 질문지(PARQ)'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은 중류층보다 낮은 인구론적, 물리적 환경특성을 보였다. 저소득층의 아동이 중류층 아동보다 정서·행동 문제를 더 많이 보였으며, 저소득층의 부모는 중류층 부모에 비해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은 자신이 소속된 가족 집단에서 자신의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르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 사회적 지위란 지역사회내에서 자신이 차지한 위치를 말하며, 이 사회적 지위는 그 사회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상하나 우열로 비교, 평가되어 하나의 계통 체계를 이루고 여기에서 비슷하게 평

가된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각각의 사회계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갖게되는 사회계층을 분류할때는 직업, 수입, 교육수준, 주거형태, 가족배경 등의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많이

\* 이 논문은 1997년도 삼성 복지 재단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사용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급격한 사회 분화에 따른 사회 이동으로 계층을 구분하는데 있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직업, 교육 수준, 수입이 계층 구분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김해영, 1994).

저소득층의 아동은 일반 중류층의 아동에 비해 서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정서·행동 문제란 사회 및 정서 발달상에 나타나는 내면화된 또는 외면화된 역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령기의 아동에게 정서·행동 문제는 흔히 나타나며 이 문제들은 그 종류나 정도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은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내며 이들은 부적절하고 공격적이며 기괴하거나 또는 위축된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학습 환경 사이에 장벽을 만들기도 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1989).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그리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사회계층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도 그 중의 한 변인이다. 여러 연구 결과, 하류층의 아동들에게 행동 문제와 비행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왔다(Inner London Education Authority, 1986; Kazdin, 1987).

저소득층의 아동이 중류층의 아동보다 더 많은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 하나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 태도를 들 수 있다. 특히 가정환경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과 태도,

가치 등을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Webster-Stratton과 Herbert(1994)는 자녀양육 태도가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의 여러 원인 중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저소득층 취약전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를 중류층 아동과 비교해 봄으로써, 소득계층과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그리고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물 토대로 아동의 발달과 행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이를 위한 문헌들을 고찰하였는데 이를 간단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저소득층 아동의 특성

저소득층의 특성은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생활 방식이나 가족의 활동을 결정하게 되고, 아동은 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부모간 갈등, 심리적 압박, 의료적 어려움, 자아존중감이나 자신감의 상실, 그리고 친구나 가족들로부터의 위축감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은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어려움을 지속화시키고 빈곤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Takeuchi, Williams & Adair, 1991).

가정의 저소득은 아동에게 필요한 환경 구성에 제약을 가져와 아동 성장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아동의 행동과 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난이 부모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때문에 아동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가정의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은 학업 성취, 인지 발달, 아동 행동상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주거 환경의 과밀집과 비위생적인 것의 영향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Broom & Selznick, 1970).

###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Kauffman(1993)에 의하면, 정서·행동 문제란 학문적,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술들을 포함하는 교육적인 상황에 있어서 아동에게 알맞은 적절한 나이, 문화, 인종적 규준과는 다른 행동적, 정서적 반응을 수반한 장애를 의미한다. 정서 문제는 외로움, 사회적 위축, 불안, 우울, 두려움 등의 내면성 문제를 말하며, 행동 문제는 공격성, 과잉운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의 외현성 문제를 말한다.

정서·행동 문제는 일시적이 아니며, 학교를 포함한 적어도 둘 이상의 장(場), 환경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다른 장애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비율이 정상아동의 6~20%에 달한다고 하며(Miller, Court, Knox & Brandon, 1974 ; Rutter, Tizard & Whitmore, 1970), 몇몇 연구들은 5~30%로 보고하기도 한다. 이러한 출현율(prevalence)은 아동이 속한 가정과 사회의 여러 다른 조건들, 즉, 가정의 분위기, 가족 관계, 자녀 양육 태도, 소득,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 아동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참여 등에 의해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는 사회적

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하류 계층의 아동이 정서·행동 문제와 비행율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Inner London Education Authority, 1986; Kazdin, 1987; Rutter, Maughan, Mortimore & Ouston, 1979).

한편, 어떤 연구들은 하류층의 경우 부모의 직업보다는 가족의 불화,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 등이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사회경제적인 결핍과 가족 관계의 불화는 어느 정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Schlesinger, 1969).

###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유형을 분류하고 개념화하였으나(예, Symonds, 1949; Schaefer, 1965; Becker, 1964; Baumrind, 1971; Maccoby & Martin, 1983), 부모의 양육태도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개념화나 구체적 연구에 적용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장 잘 설명하면서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부모의 수용과 거부를 양육태도의 중요한 두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내의 양육태도 연구에서는 Schaefer나 Becker의 2개 차원 및 Baumrind의 세 가지 유형이 주로 그 척도들로 사용되어져 왔으므로(김지신, 1996), 본 연구에서는 수용과 거부의 두 차원으로 양육태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PART)(Rohner, 1991)은 아동

의 행동, 인지, 정서발달에 있어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의 성격에 대해 부모의 수용(또는 애정)과 거부의 결과를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사회화 이론으로, 개념적으로 부모의 수용과 거부는 양육태도의 온정(warmth) 차원을 형성한다. 즉, 부모의 온정은 양극을 가진 일직선으로 표현되어, 한쪽은 수용을 나타내고 다른 한쪽은 거부를 나타내며, 모든 부모는 이 연속선상의 한 점에 위치하게 된다.

수용적인 부모란 언어나 행동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유형을 말하며, 거부적인 부모는 자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자녀에게 불만을 나타내며 화를 자주 내는 유형을 말한다. 거부적인 양육태도란 대개는 처벌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고함을 지르거나 위협을 가하며 명령을 하는 등의 언어적 행동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을 자주 사용하면 아동은 다른 사람이나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하고 어른들에게 비협조적이 되며 적의를 표현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많은 연구는 사회계층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ohn, 1979; Gecas, 1979).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에 따라 부모들이 자신이 속한 계층의 실제 생활과 일치하는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가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Gecas, 1979).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는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은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교육수준이 부

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어려움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경험들, 그리고 정신 신체적인 긴장과 공격성을 유발시킴으로써 그것이 체벌적이고 위압적인 양육 태도 특징을 창출해 낸다. 이는 저소득층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부모-아동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Berkowitz, 1989; Patterson, DeBarysche & Ramsey, 1989).

###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이에 따른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다. Webster-Stratton과 Herbert(1994)는 아동이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원인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방식에 있다고 하였으며, Hallahan과 Kauffman(1978)도 정서 부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들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를 가정의 특성과 관련시켜 조사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Hurlock(1987)은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사회화 및 협조가 잘 되고 상냥하며 명랑한 편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는 아동에게 친절, 자신감, 안정성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거부적일 때 아동은 무력, 분개, 좌절, 타인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시킨다고 했다. 이런 부모의 태도는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으로 만들며, 부모에게 거부되고 무시되고 있다고 자각하는 아동은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 되기 쉽다고 하였다.

Scott-Little과 Holloway(1992)에 따르면,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거부적인 부모의 자녀는 문제행동을 자주 일으킨다는 것이다. 반면에 양육에 있어서 애정적이며 적절한 참여를 보이는 부모의 자녀는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보인다고 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저소득층과 중류층 가정의 인구론적 특성과 물리적 환경특성은 어떠한가?
- (2) 저소득층과 중류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는 차이가 있는가?
- (3) 저소득층과 중류층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 (4) 저소득층과 중류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는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 방법

###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5세의 취학전 남녀 아동 509명으로, 저소득층의 아동이 244명(47.9%), 중류층의 아동이 265명(52.1%)이었으며, 남아가 272명(53.4%), 여아가 237명(46.6%)이었다.

### 도구

#### 1. 취학전 아동 행동 목록표

(Preschool Behaviour Checklist : PBCL)

PBCL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2-5세의 아동을 판별하기 위해 McGuire와 Richman(1988)에 의해서 개발된 평정 척도로,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가지의 행동 영역으로 구분된다(품행 문제, 정서적 문제, 사회적 관계의 문제, 집중하여 건설적으로 놀이하는 능력, 발버둥치며 떼쓰기, 언어, 습관, 대소변 문제).

각 문항은 2, 1, 0점의 3점 척도로 평가된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행동 문제의 빈도와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체 점수가 12점 이상인 경우에는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판별된다.

PBCL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 연구를 보면, Spearman-Brown의 반분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는 .83이었으며, Cronbach alpha를 이용한 내적 합치도도 .83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였다(McGuire & Richman, 1988).

본 연구에서의 Spearman-Brown의 반분 계수 신뢰도는 .88이었으며, Cronbach alpha를 이용한 내적 합치도는 .85였다.

#### 2. 부모의 수용-거부 질문지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PARQ는 Rohner(1991)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평정 척도로서, 4가지 차원의 수용-거부에 따라서 부모의 온정에 대한 아동의 경험을 측정하도록

만들어 졌다. Rohner(1991)에 의하면 수용-거부 척도는 크게 수용과 거부의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즉, 온정/애정(warmth/affection) 차원은 수용을 나타내며, 공격성/적대감(aggression/hostility), 무시/무관심(neglect/indifference), 구별되지 않는 거부(undifferentiated rejection)의 세 차원은 거부를 나타낸다. 이 척도는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 3, 2, 1점의 4점 평정척도이다.

Rohner(1991)의 연구에서 보고된 PARQ의 하위 차원별 내적 합치도는 .72-.95였으며, 여러 연구에서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Jordan, 1990; Rohner, 1991).

본 연구에서의 Spearman-Brown의 반분 계수 신뢰도는 .62였으며, Cronbach alpha를 이용한 내적 합치도는 .67이었다.

##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PBCL과 PARQ가 한국에서 표준화되지 않았으므로, 1997년 3월 10일에서 4월 4일에 걸쳐 우리말로 번역되었으며, 질문지 번역의 적절성과 연구수행시의 문제점, 어려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1997년 3월 24일에서 4월 17일에 걸쳐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을 표집하기 위하여 서울의 7개 구청(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의 가정복지과를 방문하여 저소득층과 영세민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받아 협조를 얻은 후 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보육비를 면제받거나 경감받는 아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또한 이 아동과 같은 수의 일반 아동을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연구대상에 포함

시켰다.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담임교사에게 교사용 질문지(PBCL)에 응답하도록 한 후, 각 아동에게 준비된 가정통신문 팩(가정통신문, 부모용 질문지, 선물 포함)을 보내서 회수하도록 하였다. 1997년 5월 9일 부터 7월 10일까지 교사용, 부모용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배부 684부, 회수 509부, 회수율 74.4%).

##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라 기술적인 통계방법 외에 저소득층과 중류층의 정서·행동 문제, 자녀 양육 태도의 차이를 각각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소득계층이 자녀 양육 태도와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과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중류층과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라 일차적으로 구분되어진다. 중류층의 경우 약 69%의 조사 대상가정이 월 150만원이상의 소득을 보인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9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이 32.8%, 90-99만원의 소득가정이 18% 등이었다.

중류층의 경우 전체의 3분의 2정도의 아버지가 대학교 중퇴 및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였으며 (62.3%),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3분의 2정도의 아

버지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의 학력을 보였다 (61.5%).

어머니의 경우, 중류층의 반 정도의 어머니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50.2%), 또한 반 정도가 대학교 중퇴 및 졸업 이상(43.4%)의 학력을 보였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60.2%의 어머니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의 학력을 보였다.

중류층의 경우 약 42%의 아버지가 사무직, 18%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생산직에 가장 많은 수의 아버지가 종사하고 있었으며(30%), 직업이 없는 아버지가 9%나 있었다. 그런데 무응답의 경우 무직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있으리라 추측되므로 무응답의 경우(15.6%)를 함께 고려한다면 저소득층 아버지의 실업률이 20%를 훨씬 웃돌 것이다.

중류층 어머니의 경우 사무직(21.9%)과 영업직(16.6%)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저소득층 어머니는 근로,생산직(25.4%)에 가장 많이 종사하였다.

인구론적 특성에 관한 이상의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 대상의 한 가구당 가족 수는 평균 4.3명이었다. 중류층은 4.2명, 저소득층은 4.4명으로 저소득층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류층의 경우 전세가 64.5%, 자가 25.3%인 반면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52.5%가 전세, 월세의 경우가 29.1%나 되었다.

가구당 방의 수를 비교하면 중류층이 2.3개, 저소득층이 1.9개였다( $t=5.87, p<.001$ ). 중류층의 경

<표 1> 중류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인구론적 특성

인구론적 특성		중류층 %	저소득층 %
월수입	90만원 이하	.0	32.8
	90 - 99만원	.0	18.0
	100 - 109만원	6.0	16.0
	110 - 119만원	3.8	11.9
	120 - 129만원	5.3	10.7
	130 - 139만원	5.3	1.6
	140 - 149만원	7.5	.0
	150만원 이상	68.7	.0
	무응답	3.4	9.0
계	100.0	100.0	
아버지의 교육수준	대학교중퇴 및 졸업 이상	62.3	16.0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35.1	61.5
	중학교 중퇴 및 졸업	1.1	7.8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4	3.7
	무학	.0	.8
	무응답	1.1	10.2
계	100.0	100.0	
어머니의 교육수준	대학교중퇴 및 졸업 이상	43.4	8.6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50.2	60.2
	중학교 중퇴 및 졸업	4.5	15.2
	국민학교 중퇴 및 졸업	.8	4.5
	무학	.0	1.6
	무응답	1.1	9.8
계	100.0	100.0	
아버지의 직업수준	전문기술직	7.9	1.2
	관리, 경영직	10.2	.4
	사무직	41.5	14.3
	영업직	18.1	16.8
	서비스직	6.4	12.7
	농·수·축산업	.4	.0
	근로, 생산직	10.9	29.9
	무직	1.5	9.0
	무응답	3.0	15.6
	계	100.0	100.0
어머니의 직업수준	전문기술직	10.9	.0
	관리, 경영직	.4	.4
	사무직	21.9	9.8
	영업직	16.6	17.6
	서비스직	6.4	3.3
	농·수·축산업	.0	.0
	근로, 생산직	7.9	25.4
	무직	26.4	29.9
	무응답	9.4	13.5
	계	100.0	100.0

우 52.8%의 가구가 방이 2개, 31.3%는 방이 3개였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58.6%가 방이 2개였으며 방이 하나인 경우도 21.3%였다.

가족 구성원 일인당 차지하는 방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를 가족수로 나누어 본 결과, 중류층은 일인당 0.58개, 저소득층은 일인당 0.47개의 방을 차지하였다( $t=6.46, p<.001$ ). 다시 말하면, 한 방에 거주하는 인원은 중류층의 경우 1.7명이었고 저소득층은 2.1명이었다.

대부분의 중류층의 부모는 자신들의 생활수준이 '중'이라고 응답하였고(75.5%), 반면에 저소득층은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중'과 '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3%, 46.3%로 비슷하였다.

대상 가정 중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지않는 가정이 중류층의 경우는 3.8%(10가정), 저소득층의 경우는 16.8%(41가정)이었다. 중류층의 경우 결혼율이 낮았으나, 저소득층은 중류층에 비해서 결혼율이 네 배 이상 높았고 이혼한 가정도 7.8%(19가정)로 높은 이혼률을 보였다. 결혼 가정의 기타 이유로는 직장때문인 경우 외에도 미혼모, 부도가 나서, 아버지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등이 있었다.

집에서 누가 아동을 돌보는가에 관한 문항에서는 적합한 응답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중류층과 저소득층 모두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저소득층의 아동이 중류층의 아동에 비해서 형제가 아동을 돌보는 경우(17.6%)와 아동 혼자서 노는 경우(6.2%)가 많다는 것이다. 즉, 저소득층의 아동은 취학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양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물리적 환경특성에 관한 이상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중류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중류층 x	저소득층 x
주거형태	자가	25.3	10.7
	전세	64.5	52.5
	월세	5.3	29.1
	기타	3.8	5.7
	무응답	1.1	2.0
계	100.0	100.0	
방의 수	1개	9.4	21.3
	2개	52.8	58.6
	3개	31.3	16.4
	4개 이상	5.3	.8
	무응답	1.1	2.9
계	100.0	100.0	
생활 수준	상	1.5	.8
	중	75.5	43.0
	하	15.8	46.3
	무응답	7.2	9.8
계	100.0	100.0	
결혼 유무와 사유	정상가정	96.2	83.2
	결혼	.4	2.9
	사별	1.1	7.8
	이혼	.4	2.5
	가별거정 기타	1.9	3.7
계	100.0	100.0	
돌보는 사람	어머니	56.5	40.4
	할머니	14.0	19.7
	아버지	11.3	11.4
	할아버지	4.5	4.1
	형제	10.4	17.6
	혼자서	3.3	6.2
	기타	.0	.5
계	100.0	100.0	

## 2.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본 연구의 아동을 대상으로한 취학전 아동행동 목록표(PBCL) 점수의 분포는 정적 편포를 보였다. 본 연구의 점수범위는 0-32점이었는데, 0-8점 사이에 52%, 0-11점 사이에 68%, 0-14점 사이에



81%, 0-18점 사이에 92%의 아동이 위치한다는 사실에서 편포의 정도를 알 수 있다. PBCL 전체 점수의 평균은 8.98이며 표준편차는 6.45였다.

509명의 조사대상 아동중 PBCL 점수가 12점 이상인 아동은 150명이었고, 따라서 정서·행동 문제의 출현율은 29.5%였다( $150 \div 509 \times 100 = 29.5$ ).

중류층 아동의 경우는 265명의 아동 중에서 PBCL 점수가 12점 이상인 아동이 58명으로 21.9%( $58 \div 265 \times 100 = 21.8$ ), 저소득층 아동은 244명 중에서 92명의 아동이 12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37.7%( $92 \div 244 \times 100 = 37.7$ )의 출현율을 보였다. 저소득층 아동의 출현율이 중류층의 아동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더 높았으며, 이 두 출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14.72$ ,  $p < .001$ ). 즉, 중류층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의 저소득층 아동이 정서·행동 문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계층에 따라 취학전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류층과 저소득층의 PBCL 점수의 평균의 차를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저소득층 아동이 더 많은 정서·행동 문제를 보인 문항은 전체 22문항 중 10문항이었다. 중류층 아동의 PBCL 평균점수는 7.81이었고 저소득층 아동은 10.22였으며, 이 두 평균간의 차이는 의의 있었다( $t = -4.12$ ,  $p < .001$ ).

정서·행동 문제에서 차이를 보인 문항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취학전 아동행동 목록표에서 분류된 행동영역에 따라 중류층과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를 비교하였다. 취학전 아동행동 목록표는 22개 문항을 6개의 행동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McGuire & Richman, 1988). 이 6개 영역중 정서적 문제( $t = -2.93$ ,  $p < .01$ ), 품행

문제( $t = -2.19$ ,  $p < .05$ ), 집중하여 건설적으로 놀이하는 능력( $t = -3.14$ ,  $p < .01$ ), 사회적 관계( $t = -2.62$ ,  $p < .01$ ), 언어,습관,대소변의 문제( $t = -2.08$ ,  $p < .05$ )의 5개 영역에서 중류층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간에 차이가 있었으며(<표 3> 참조), 발버둥치며 떼쓰는 것은 중류층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표 3> 중류층과 저소득층 아동의 행동 영역별 정서·행동 문제 비교

행동영역별 분류	중류층		저소득층		t
	M	SD	M	SD	
정서적 문제	1.98	1.73	2.47	1.96	-2.93**
품행문제	2.06	2.56	2.57	2.69	-2.19*
사회적 관계	1.17	1.62	1.56	1.59	-2.62**
집중하여 건설적으로 놀이하는 능력	1.85	1.47	2.29	1.73	-3.14**
발버둥치며 떼쓰기	.25	.48	.31	.51	-1.39
언어, 습관, 대소변 문제	.62	.97	.81	1.02	-2.08*
전체	7.81	5.93	10.22	6.76	-4.12***

\*  $p < .05$  \*\* $p < .01$  \*\*\* $p < .001$

### 3.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중류층 부모의 양육태도(PARQ) 점수는 106.51이었으며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태도 점수는 110.13으로 두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t = -2.26$ ,  $p < .05$ ). 즉, 중류층의 부모가 저소득층의 부모에 비해서 더 수용적인 (또는 덜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주었다. PARQ 60문항중 중류층과 저소득층간에 양육태도의 차이를 보인 문항은 총 15문항이었다. 소득계층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를 PARQ의 차원별로 살펴보면, 온정/애정 차원의

경우 중류층의 부모가 저소득층의 부모보다 좀 더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t=-3.33, p<.001$ ).

공격성/적대감 차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무시/무관심 차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47, p<.05$ ). 즉, 중류층의 부모가 저소득층의 부모에 비해서 더 낮은 수준의 무시/무관심을 보였다.

마지막 차원인 구별되지 않는 거부 차원의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의 세가지 차원(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구별되지 않는 거부 차원)의 점수를 합하여 전체적인 거부차원의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 거부차원의 점수는 저소득층이 81.06, 중류층이 78.69이었으며,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t=-1.94, p<.05$ ). 즉,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태도는 중류층의 양육태도보다 거부적이라고 하겠다.

수용점수와 거부점수를 합한 전체 양육태도 점수는 저소득층이 110.13, 중류층이 106.51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t=-2.26, p<.05$ ). 즉, 전체적인 양육태도를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태도는 중류층의 양육태도보다 덜 온정적이라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 4. 소득계층, 자녀양육태도,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관한 경로모델 분석

소득계층과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그리고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개념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경로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

<표 4> 중류층과 저소득층에 따른 분류영역별 양육태도

양육태도의 분류영역	중류층 아동		저소득층 아동		t
	M	SD	M	SD	
온정/애정	27.68	5.60	29.54	6.59	-3.33**
공격성/적대감	33.57	6.80	33.96	6.40	-.65
무시/무관심	24.97	5.12	26.17	5.53	-2.47*
구별되지 않는 거부	20.44	4.48	20.92	3.50	-1.31
거부 점수'	78.69	13.13	81.06	12.57	-1.94*
전체 수용-거부 점수*	106.51	16.61	110.13	16.54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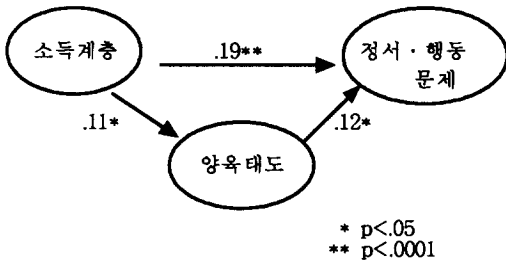
\*  $p<.05$  \*\* $p<.001$

' 거부 점수 : 공격성/적대감+무시/무관심+구별되지 않는 거부  
" 전체 점수 : 온정/애정+공격성/적대감+무시/무관심+구별되지 않는 거부  
(즉, 온정/애정+거부 점수)

치는 변인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득계층이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이 관계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가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계층,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그리고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세 변인만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계층이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계층은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beta=.19, p<.0001$ ),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간접적인 영향은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을 연결해주는 경로를 따라 경로계수를 곱하여서 얻어진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전체 효과(영향력)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합하여 얻어지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효과는 .20이었다. 즉, 중류층에 비해서 저소득층의 아동은 정서·행동 문제를 더 많이 보이며 또한 저소득층의 부모는 더 거부적인 자녀양육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이 거부적인 자녀양육 태도는 아동이 더 많은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는 [그림 1]과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소득계층, 양육태도, 정서·행동 문제 간의 경로분석

<표 5>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적(직접적, 간접적) 효과

변인	직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	전체 효과
소득계층	.19	.01	.20
자녀양육 태도	.12	-	.12

### 논의

본 연구는 중류층과 저소득층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와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를 비교하고 소득계층이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파악하여,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류층과 저소득층의 가정환경을 비교해본 결과, 저소득층이 중류층에 비해서 모든 조건이 열악하였다. 가족의 총 수입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수준, 생활수준이 모두 중류층에 비해서 낮았다. 이는 중류층과 저소득층의 가정환경을 비교한 다른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90). 또한, 주거형태, 방의 수 등 물리적인 환경도 중류층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열악하였으며, 결손가정의 비율이 높았고 그 원인으로 이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도 여러 다른 연구들과 일치한다(이승양, 1982).

중류층에 비해서 저소득층의 아동이 더 많은 정서·행동 문제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취약한 아동행동 목표의 출현을 비교와 평균점수의 비교로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정서·행동 문제의 출현율은 29.5%로 선행연구들에 의한 출현율(5-30%, Kauffman, 1993; Miller et al., 1974; Rutter et al., 1970)과 비교해볼 때 그 범위 내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출현율이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중류층과 저소득층의 아동을 비슷한 수로 표집하여 그 출현율을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아동이 더 많은 정서·행동 문제를 보인다는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높은 출현율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류층 아동만의 정서·행동 문제의 출현

율은 21.9%로 선행연구들의 출현율과 유사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만의 출현율은 37.7%로 위의 설명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저소득층의 아동이 더 많은 정서·행동 문제를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층의 아동이 정서·행동 문제와 비행율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예, Inner London Education Authority, 1986; Kazdin, 1987; Rutter et al., 1979). 또한, 저소득층의 부모는 그 직업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부모의 직업에 따라라도 정서적 부적응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예, Davies, Butler & Goldstein, 1972; Rutter et al., 1979).

아동은 가정이라는 생태조직 내에서 부모를 모방하며 성장한다. 특히 자녀의 성격을 결정 지우며 개인적·사회적 적응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자녀의 정서적 관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수용-거부 질문지에서 중류층과 저소득층은 수용적인 양육태도와 거부적인 양육태도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다. 즉, 저소득층에 비해서 중류층의 부모가 더 수용적인(또는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중류층에 비해서 저소득층의 부모는 더 거부적인(즉, 무시하는/무관심한) 양육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계층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예, Gecas, 1979; Kohn, 1979).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경험들, 그리고 정신 신체적인 긴장과 공격성을 유발시킴으로써 그것이 체벌적이고 위압적인 양육 태도 특징을 창출해 내기 때문에 저소득층 부

모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부모-아동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Berkowitz, 1989; Patterson et al., 1989).

한편, 소득계층과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변인들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델은 입증되었다. 소득계층은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 간접적인 영향은 소득계층에 따라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가 달라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들의 결과(예, Rohner, 1991; Scott-Little & Holloway, 1992)에 의해서 설명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은 여러 면에서 불리하고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류층과 저소득층의 가정환경과 물리적 환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은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중류층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와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서 본 바와 같이 심리적, 행동적으로도 부정적인 상태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저소득층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빈곤의 세대전이를 지적하고 있다. 빈곤의 세대전이를 막고 저소득층 아동의 원만한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경험을 조기에 제공해 주어야 하며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빈곤에서의 탈출을 돕는데 중요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의 양육환경과 정서·행동 문제를 연구하여 빈곤의 세대간 연결고리를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넓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층을 취학전에서부터 학령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에 따른 정서·행동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아동 행동목록표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들에 관해서 교사가 자유반응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기타 다른 문제행동들을 묻는 질문을 첨가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취학전 아동들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취학전 아동행동목록표에 포함시켜 그 빈도와 분포를 알아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취학전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를 판별하는데 적합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지신 (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 (1994). 저소득층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양육 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양 (1982). 도시빈곤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90). 한국 탁아사업의 어제, 오늘, 내일.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 1-103.
- Becker, W.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69-208), Vol. 1. NY: Russell Sage Foundation.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59-73.
- Broom, L., & Selznick, P. (1970). *Principals of sociology* (4th ed.). NY:Harper & Row.
- Burbach, H.J. (1981). The labelling process: a sociological analysis. In J.M.Kauffman & D.P. Hallahan (Eds.), *Handbook of special education* (pp. 361-377). N.J.: Prentice Hall.
- Davies, R., Butler, N.R., & Goldstein, H. (1972). *From birth to seven*. London: Longman.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1989). *Special schools for pupils with emotio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Circular 23/89. London: HMSO.
- Gecas, V. (1979).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socialisation. In W.R. Burr, R. Hill, F.I. Nye & I.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1). NY: Free.
- Hallahan, D.P., & Kauffman, J.M. (1978). *Exceptional childre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NY: Prentice-Hall.
- Hurlock, E.B. (1987). *Child development* (6th ed.). NY: McGraw-Hill.

- Inner London Education Authority (1986). *The junior school project*. London: ILEA Research and Statistical Branch.
- Jordan, F.F. (1990). A test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and validation and reliability of related measures. Ph.D thesis,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Kauffman, J.M. (1993).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u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5th ed.). NY: Macmillan.
- Kazdin, A.E. (1987). *Conduct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 Sage.
- Kohn, M.L. (1979). The effect of social class on parental values and practices. In D. Reiss & H.A. Hoffman (Eds.), *The American family* (45-68). NY: Plenum.
- Maccoby, E.E., & Martin, J.A. (1983). Socialis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s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1-101). NY: Wiley.
- McGuire, J., & Richman, N. (1988). *The preschool behaviour checklist handbook*. UK: NFER-NELSON.
- Miller, F., Court, S.D.M., Knox, E.G., & Brandon, S. (1974). *The school years in Newcastle-upon-Tyne*. London: Oxford Univ.
- Patterson, G.R., DeBaryshe, B.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u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Rohner, R.P. (1991).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re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Rutter, M., Maughan, B., Mortimore, P., & Ouston, J. (1979). *Fifteen thousand hours*. Somerset: Books.
- Rutter, M., Tizard, J., & Whitmore, K. (Eds.) (1970). *Education, health and behaviour*. London: Longman.
- Schaefer, E.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u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chlesinger, B. (1969). *The one-parent family: perspectives and annotated bibliography*. NY: Macmillan.
- Scott-Little, M.C., & Holloway, S.D. (1992). Child care provider's reasoning about misbehaviours: relation to classroom control strategies and professional train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 595-606.
- Symonds, P.M. (1949).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Y: Appleton-century craft.
- Takeuchi, D.T., Williams, D.R., & Adair, R.K. (1991). Economic stress in the family and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31-1041.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 (1994). *Troubled families - problem children: working with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s and Their Parents' Acceptance and Rejection in Low Income Families**

Kim, Kyung Hee

Professor, PhD.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Hwang, Hye Jung

Researcher, PhD.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devised to compare low income with middle class families for their effects on the 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s of Korean preschool children. Five hundred and nine children were assessed by teachers using the Preschool Behaviour Checklist (PBCL).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showed more problems than those from middle class families.

Based on this result, parenting styles were considered as mediating variables for the preschool children's problems. Parenting styles were assessed by the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s was due to differences in parenting styles, which were attributable to the two family classes. Par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showed more rejecting parenting styles; that is, they showed less warmth/affection and more neglect/indifference in their parenting styles.

Family class had an influence on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s directly as well as on parenting style which in turn influenced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s.